

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· 경찰청 MOU 체결, 상호 교류협력 강화

- 경찰청, 로스쿨 출신 변호사 채용논의 본격화 -

- (1)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와 경찰청은 지난 2013년 1월 30일,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(이하 로스쿨) 원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'상호 교류협력에 관한 업무협약'을 체결하고, 경찰수사와 치안행정 발전을 도모하고, 법률환경 변화에 부응한 우수한 법률가를 양성하기 위해 양 기관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.
- (2) 이번 협약 체결에 따라 경찰청에서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 채용을, 전국 로스쿨에서는 경찰학 관련 교과과정 개설을 중점 추진하는 등 상호 인적·물적 교류를 활발하게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.

〈 주요 협약 내용 〉

- **(경찰청)** 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경찰관 채용 추진 및 실무수습 지원
- **(법학전문대학원)** 경찰행정 및 수사실무과정 개설
 - ※ 경찰청에서는 교수 및 교재 개발 지원
- **상호 인적·물적 교류**
 - 년1회 이상 경찰청장과의 협의회 소속 로스쿨 원장 정례회의 개최
 - 용역사업 등 공동 연구사업 추진 및 합동 학술회의 개최
 - 관련 교수들의 경찰행정 참여, 재학생들의 경찰관서 견학·현장체험 추진

- (3) 경찰청은 전국 로스쿨 원장들을 상대로 한 향후 정책 추진방향 설명회에서 경찰대 정원을 일부 줄이는 대신, 로스쿨 출신 변호사를 정규 경찰관 및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여 각급 경찰관서에 배치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.
- (4) 따라서,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전국의 일선 경찰서 수사실무자로 배치되고, 수사감찰관 일명 '몸부즈만'으로 활동하는 등 경찰청이 향후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주요 활동무대가 되면서 이들이 보다 국민 가까워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.

- (5) 김기용 경찰청장은 “다양한 분야의 전문역량과 법률지식을 겸비한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일선 경찰수사기능에서 활동함에 따라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고 수사과정에서의 인권보호도 한층 강화될 것이며, 내부적으로는 입직경로를 다원화함으로써 경찰대 등 특정 출신이 상위직을 독점한다는 우려를 해소할 것”이라고 제도 도입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였다.
- (6) 한편, 신현운 이사장은 협약식에 참석한 전국 로스쿨 원장들을 대표하여 “이번 업무협약으로 경찰청과의 유기적 협력의 기틀이 마련되었으며, 경찰청의 로스쿨 출신자 채용 방침에 감사”의 뜻을 전하고, 로스쿨에서 배출한 변호사들이 치안행정과 경찰수사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.
- (7) 앞으로 경찰청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그 소속의 각 대학원장은 년 1회 이상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으로 교류협력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며, 각 지역별로 지방경찰청과 인근 로스쿨간 개별 협약 체결 등을 통해 과학수사 관련 연구·발전 등 지역특성에 맞는 교류·협력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.
- (8) 경찰청은 조속한 시일 내에 대내외 의견수렴 및 관련부처 협의 등을 거쳐 변호사 채용 규모, 시기 등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된 뒤, 4월 8~9일 양일간 서울 강남 코엑스(COEX)에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후원하고 로스쿨협의회 주관으로 개최되는 ‘2013 법학전문대학원 취업박람회’에 참여하여 로스쿨 출신 변호사 채용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설 계획이라고 언급하였다.